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김 광 은[†]

공군사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이 성격 특성이나 스트레스 대처 전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인 애착에 관한 문헌 연구와 대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및 관련 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안정된 성인 애착 유형은 성인 애착의 하위 요인 가운데 자신감이 가장 높았으며, 여러 성격 특성 중 활동성, 안정성, 사회성 면에서 불안정한 애착 유형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들은 신경증적 경향이나 정신장애적 경향, 그리고 반사회적 경향도 낮게 나타났다. 안정된 애착유형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불안정한 유형들보다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하였다. 불안정한 애착 유형은 유형들-거부, 몰두, 두려운-에 따라 다소 다르나, 안정형에 비해 자신감이 낮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신경증적 성향이나 정신장애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불안정한 애착유형은 회피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들이 상담 및 심리치료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 애착 유형, 성인 애착 요인, 성격 특성, 스트레스 대처 방식

* 본 연구는 2003년도 공군사관학교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 : 김 광 은, (363-849)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3호, 공군사관학교
전화 : 043-290-5043 E-Mail : kukim@afa.ac.kr

부모, 친구, 연인, 부부, 동료 등 성인기에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홀로 설 수 있으면서도 필요시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성인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대해 연구한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연구에서 비롯되었다(West & Keller, 1994). 영아를 대상으로 시작된 애착 연구를 성인으로까지 확장시키려는 시도는 심리학 내에서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을 띠고 있다(Berman & Sperling, 1994).

첫 번째 흐름은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주도되고 있는 연구들(장휘숙, 1997b; Ainsworth, 1985; Kobak & Hazan, 1991; Kobak & Sceery, 1988)로서, 이 연구들은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일생동안 지속된다는 애착의 전생애 모델(life-span model)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은 영아에게서 나타났던 애착의 패턴이 청소년기나 성인기로 이어지는 발달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발전해 가는가를 밝히는 데에 주 관심이 있다.

두 번째 흐름은 사회심리학이나 성격심리학의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Bartholomew & Horowitz, 1991; Feeney & Noller, 1990; Shaver, Hazan, & Bradshaw, 1988)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학생이나 결혼한 부부와 같이 비교적 정상적인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설문 조사 같은 사회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성인기 애착의 유형별 특성이나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밝히는데 주력한다. 현재 성인 애착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Hazen과 Shaver의 연구(1987)나 Bartholomew와 Horowitz의 연구(1991)에서 나온 성인 애착 유형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세 번째 흐름은 상담이나 임상적인 관점에서 애착이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성격특성을 형성하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연구들(Sperling & Berman, 1991; West & Keller, 1994; West, Sheldon, & Reiffer, 1987)이다. 이 연구들은 발달 병리적 관점에서 초기 애착형성과정과 성인기 문제 행동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기울일 뿐 아니라,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한 안정된 애착경험이 얼마나 치료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이외에도 Lopez와 Brennan(2000)은 지난 20년간 수행된 성인 애착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메타 이론적 관점에서 성인 애착 연구는 건강하고 효율적인 성격에 관심을 둔 이론들과 상당히 부합됨을 제시하였다. 즉 성인기에 안정된 애착 패턴은 인지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대인관계를 이루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아실현자의 성격특성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 애착에 대한 연구는 건강한 성격의 발달적 측면 및 구성 요소를 밝혀주는 발달심리학이나 사회성격심리학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애착의 핵심적 과정을 재 경험하게 하는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성인기에 경험하는 애착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의 틀을 제공한 것으로 Hazen과 Shaver(1987)의 연구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Hazen과 Shaver(1987)는 연인들 간에 형성되는 유대관계는 영아와 부모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관계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영아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애착유형- 안정된, 회피적, 불안한/양가적-이 성인기에도 그대로 나타나

는 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두개의 독립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인간의 관계 경험 및 이전 가족과의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애착유형의 분포가 애착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며, 안정된 애착집단에 비해 두개의 불안정한 집단은 애인관계의 경험의 질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연애 기간도 짧았으며, 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게 기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기에도 아동과 유사한 애착패턴이 대인관계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Hazen과 Shaver(1987)의 주장대로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패턴이 성인기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까?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이러한 애착패턴의 지속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린시절의 애착관계 경험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을 총괄하는 내적 표상으로서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러한 정신적 표상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애착유형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모델은 사랑과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신뢰롭고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타인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2 × 2의 네 가지 작동 모델로 구분된다. 이와 더불어 대인관계에서의 의존과 회피의 높고 낮음에 따라 애착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안정된 (secure)사람은 영아와 성인 연구에서 확인된 안정된 사람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이들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타인을 접근가능하고 반응적이라고 기대한다. 몰두된(preoccupied) 유형은 영아 연구의 양가적 양식과 일치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의 거부적(dismissing) 유형은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지만 자



그림 1.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애착 모델

신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한다. 마지막의 두려운(fearful) 유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가치감과 기대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Bartholomew 등(1991)은 이들의 기본 가정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법과 피험자 자신 및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는 안정형과 거부형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높게 나타났으나,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거부형은 대인관계면에서 따뜻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타인을 안전기지로 활용하는 측면이 현격하게 낮았다.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는 몰두형의 경우, 자신감이나 자존감 수준은 낮았으나 타인에 대한 의존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기와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두려운 유형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네 유형에서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사회성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인 애착을 설명하는 두 가지 모델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확실적인 자료는 없지만 Feeney, Noller, & Hanrahan(1994)은 성인 애착의 기본 개념을 반영한 설문지를 통해 성인 애착의 구성개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선행연구들이 주로 낭만적인 연애관계의 경험을 떠올려 평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애착경험을 보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요인분석한 결과, 애착개념은 세 가지 요인 즉 안정, 회피, 불안으로 설명될 때보다 다섯 가지 요인으로 묶여질 때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다섯 가지 요인은 자신감(confidence), 관계에 몰두(preoccupation with relationship), 승인 욕구(need for

approval), 친밀감 불편(discomfort with closeness), 그리고 성취를 위해 관계를 부차적으로 여기는 것(relationship as secondary)이다. 이중 자신감이 안정된 애착유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면 관계 몰두나 승인 욕구는 몰두형에서, 친밀감 불편과 관계를 부차적으로 여기는 것은 거부형에서 기대되는 특성이다. 두려운형의 경우는 자신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모두에서 높은 가능성이 많다. 실제 Feeney 등(1994)은 두 집단의 청년들에게 그들이 만든 애착검사를 실시한 결과, 애착 유형에 따른 애착의 다섯 요인과의 관련성이 기대한 대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장휘숙(1997a)도 우리나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의 세 가지와 네 가지 유형 모델 중 어떤 것이 성인 애착의 특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역사를 조사하고 피험자들이 자기 보고를 통해 나타낸 성인 애착의 유형과 이 유형에 따른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로 성인 애착을 분류하여 설명하는 모델이 세 가지 유형 모델보다 좀더 민감하게 성인기 애착을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성인 애착과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자아정체성(Kennedy, 1999), 자존감(김선희 등, 2001; 장휘숙, 1997a; Feeney & Noller, 1990; Meyers, 1998), 통제 소재(김선희 등, 2001),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Collins, 1996; Feeney, 1998), 인지적 귀인(김은정 등, 1998), 활동성(Feeney et al, 1994), 우울, 불안 등의 신경증 증상(김은정 등, 1998; Lopez, Maurico, & Gormley, 2001; Meyers, 1998)이나 성격장애(Lyddon & Sherry, 2001), 스트레스 대처(김정연, 2003; 이경희, 2001; 정민현, 2003; Brennan et al, 1995; Florian et al., 1995)와 연관되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안정된 애착 패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자신에 대해 통합된 정체감을 갖고 있으며(Kennedy, 1999), 자신감이 있고(Meyers, 1998) 자기 존중감이 높았다(김선희 등, 2001; 장휘숙, 1997a; Feeney & Noller, 1990; Meyers, 1998), 통제 소재 면에서도 행운이나 우연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가 더 결정적이라는 내적인 귀인 체계를 갖고 있으며(김은정 등, 1998), 부모, 친구, 연인과 같은 가까운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Collins, 1996; Feeney, 1998). 또한 안정된 애착관계를 보이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울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증상이 불안정한 애착집단보다 현격하게 낮고(김은정 등, 1998; Lopez, Maurico, & Gormley, 2001, Meyers, 1988), 이들은 새로운 정보나 사람에 대해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병리적인 성격특성도 매우 낮았다(Lyddon and Sherry, 2001).

또한 성인 애착 유형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거나 부정적인 정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Brennan과 Shaver (1995)의 연구에서 안정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반면 회피적이거나 불안-양가적인 사람들은 음식이나 친밀감이 동반되지 않는 섹스, 술을 찾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로 인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나 여행과 같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정된 애착유형은 주로 자기 의존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에 비해 불안정한 애착 유형은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심리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며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적응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Lopez et al., 2000; Lopez et al., 2001).

안정된 애착 패턴의 형성 유무는 불안을 유발

하는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취하는 반응 면에서도 차이를 가져온다. Simpson과 그의 동료들(Simpson, William, & Nelligan, 1992)은 연애관계에 있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불안상태에서 취하는 행동 양식을 관찰한 결과, 안정된 애착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커플들은 회피적인 유형의 커플보다 신체적인 접촉 빈도나 지지적인 말의 사용 빈도가 높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주로 사용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Florian 등(1995)의 연구에서도 안정된 애착유형은 회피적이거나 양가적인 유형보다 사회적지지 세력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Lopez et al., 2001)에서 불안한 애착유형은 부정과 억압 중심의 억압적 대처반응(예: “나는 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애착 연구는 주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점차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성인애착과 관련된 요인을 밝혀보려는 연구들(김동직, 한성렬, 1997; 김세진, 1999)과 상담 및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성인 애착이 내담자 이해 및 접근 방식에 시사를 줄 수 있는 연구들(김순영, 1998; 김은미, 2000; 김정연, 2003; 이경희, 2001; 이훈진, 2002; 정미나, 2003; 정민현, 2003; 최해림, 조영주, 2001)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 애착의 개념이 한 개인의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할 뿐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을 총괄하는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도 유효할 수 있다는 Lopez와 Brennan(2000)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인 애착과 관련된 성격특성을 밝히는 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에 앞서 주로 성인기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의 경우 성인기 애착 유형별 분포나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성격특성과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인 성격 특성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성격특성과의 관련성도 살펴보고 좀더 통합적인 면에서 성인 애착과 성격과의 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성인 애착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고 상담 장면에서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성인 애착의 기본 개념 및 특성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수 뿐 아니라,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의 특성 이해 및 이들에게 적합한 상담 전략을 수립할 때에 유용한 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대상

본 연구에는 충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 C대학의 학생 433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269명이고, 여학생은 164명이였다. 본 조사는 심리학 개론 수업을 이용하여 담당 교수의 주관 하에 실시되었으며,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27세이며, 평균연령은 19.59세(표준편차 1.44)였다.

도구

애착 척도

성인 애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로 Bartholomew

등(1991)의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작동모델을 근거로 자기상과 타인상의 두 수준을 조합하여 애착의 네 가지 유형을 알아보는 관계 질문지(Relational Questionnaire)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그리고 두려움형의 애착양식을 설명하는 네 개의 문장을 주고 이 문장 중에서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하나만 고르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관계질문지의 내용을 번역하여 영문학자의 감수를 받은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질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한 김세진(김세진, 1999)의 연구도 참고하였다.

성인 애착의 요인 별 특성을 알아보는 검사로는 Feeney 등(1994)이 개발한 애착 질문지를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원 검사의 일차적 번역은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하였으며, 일차 번역된 문항들에 대해 본 연구자가 성인 애착 개념 및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감수하였다. Feeney 등(1994)이 개발한 애착 검사는 성인 애착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성인 애착을 다섯 개의 하위 요인- 자신감, 관계 몰두, 승인 요구, 친밀함 불편, 관계 부차적-을 통해 살펴보고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애착관계를 알아보고도록 진술된 질문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6점 척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의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Feeney 등(1994)의 연구에서 .67에서 .73 로, 본 연구자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56에서 .82로 나타났다.

성격검사

각 개인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특성 이론에 근거해서 황응연, 김광은, 윤유경(2003)이 개발한 대학생 및 성인용 표준화 인성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1992년에 처음으로 만

들어져 2003년에 1차 개정되었다. 이 검사는 총 18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척도와 임상척도, 그리고 타당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제외한 기술척도와 임상척도를 통해 성격특성을 알아보았다. 기술 척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성격특성은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 자율성, 성취성이며 임상척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신경증적 경향, 정신장애적 경향, 반사회적 경향이다. 2003년 검사 개정시 이 검사의 타당도는 준거검사와의 상관관계에서 각 요인에 따라 .38에서 .67까지 나타났으며, 검사의 신뢰도는 각 요인별로 내적 일치도 면에서 .64~.81까지, 반분신뢰도는 .53~.83, 그리고 재검사 신뢰도 면에서 .68~.77의 결과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Amirkhan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신혜진과 김창대(2002)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안하여 타당화 작업을 거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검사지(K-CS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중 한 가지를 떠올린 후,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항이 제시하는 대처 반응을 취했던 정도에 따라 3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설문지는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처 양식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지지 추구(social support seeking), 문제해결 중심(problem solving), 회피중심(avoidance)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84였으며, 하위 척도에 대해서는 각각 .90, .88, .67으로 나타났다.

결과 및 해석

성인 애착 유형과 애착 요인

애착 유형 빈도

성인 애착 유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몰두형, 두려운형, 거부형의 순서를 보였다. 애착유형별 분포는 장휘숙(1997a)의 연구에서는 안정, 거부, 몰두, 두려운형이 각각 45%, 16%, 30%, 21%로 나타난 바 있고, Batholomew 등(1991)의 연구에서 첫 번째 집단에서는 47%, 18%, 14%, 21%로, 두 번째 집단에서는 57%, 12%, 10%, 15%의 분포를 보였다. Feeney 등(1994)의 연구에서는 유형별 분포가 40.4%, 24.7%, 22.1%, 12.8%로 나타난 바 있다.

각 연구마다 유형별 분포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안정형은 전 연구에서 40%에서 50% 내외로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의 표집에서는 불안정한 애착유형 중 몰두형이 가장 많은데 비해, 미국의 경우는 거부형이나 두려운형의 비율이 더 높다. 아직 이러한 분포의 차이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양육방식이나 인간관계를 규정짓는 문화적 차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애착유형별 분포는 성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형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불안정한 애착패턴 중 몰두형에 속한 비율이 높고, 여성은 두려운형에 속한 비율이 높았다. 애착 유형과 성별간의 차이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Brenman 등(1991)의 연구에서 애착유형과 성별간에는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Bartholomew 등(1991)의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거부형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성은 남

표 1. 애착유형 및 성별에 따른 빈도(%)와 Chi-Square 검증

| 애착유형 | 성 별 | | 계 | Chi-Square |
|------|----------|----------|----------|------------|
| | 남 | 여 | | |
| 안정형 | 133(49) | 88(54) | 221(51) | 15.167* |
| 거부형 | 9(4) | 10(6) | 19(5) | |
| 몰두형 | 89(33) | 29(17) | 118(27) | |
| 두려운형 | 38(14) | 37(23) | 75(17) | |
| 계 | 269(100) | 164(100) | 433(100) | |

* $p < .05$

성보다 두려운 유형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별간의 차이 역시 아직은 분명한 원인을 추론할 수 없지만, 양성의 기본적 기질 차이나 각각의 문화에서 요구되는 성역할 등이 이러한 성별 애착 유형 분포와 상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애착요인 간의 상관

성인 애착 개념을 구성하는 애착 요인간에 상관관계를 보면, 안정된 애착유형과 관련 있는 자신감은 불안정한 애착과 관련 있는 나머지 네 요인과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불안정한 애착과 관련 있는 요인 중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는 몰두형과 관련 있는 두 요인, 즉 관계 몰두와 승인 욕구는 상호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친밀감 불편과 관계를 부차적으로 여기는 요인 역시 서로간의 상당한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애착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개념들이 성인 애착의 유형별 분류를 타당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유형과 애착요인 간의 관계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애착 유형과 애착 요인간에는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안정형은 다섯 개의 애착 요인 가운데 전 요인에서 불안정한 세 개의 애착 집단과 의미 있는

표 2. 애착요인 간에 상관관계

| 애착요인 | 자신감 | 관계 몰두 | 승인 욕구 | 친밀함 불편 | 관계 부차적 |
|--------|-----|--------|--------|--------|--------|
| 자신감 | - | -.36** | -.44** | -.37** | -.29** |
| 관계 몰두 | | | .55** | .20** | .14** |
| 승인 욕구 | | | | .26** | .26** |
| 친밀함 불편 | | | | | .45** |
| 관계 부차적 | | | | | - |

** $p < .001$

표 3. 애착 유형과 애착 요인별 평균(표준편차) 및 F검증

| 애착요인 | 애착 유형 | | | | F | Scheffe |
|--------|-------------|-------------|-------------|-------------|----------|------------------|
| | 1. 안정형 | 2. 거부형 | 3. 몰두형 | 4. 두려운형 | | |
| 자신감 | 34.34(4.36) | 29.58(4.45) | 30.41(4.19) | 29.18(4.51) | 38.54*** | 1>2,3,4 |
| 관계 몰두 | 27.04(4.68) | 26.21(4.97) | 31.71(4.22) | 31.34(6.05) | 32.08*** | 1<3,4 |
| 승인 욕구 | 22.93(4.41) | 23.73(4.71) | 26.13(4.16) | 26.09(3.49) | 19.72*** | 1<3,4 |
| 친밀함 불편 | 31.47(5.53) | 41.47(8.36) | 33.54(5.64) | 37.60(7.31) | 30.15*** | 1<2,3,4 3<2,4 |
| 관계 부차적 | 19.27(4.35) | 23.68(4.66) | 20.83(3.98) | 21.69(3.82) | 11.78*** | 1<2,3,4 |

*** $p < .0001$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거부형의 경우, 이와 정반대 되는 표상을 갖고 있는 몰두형이나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두려운형에 비해 관계 몰두와 승인 욕구 요인에서 안정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거부형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보이는 친밀감 불편이나 관계를 부차적으로 여기는 요인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유형에서 안정된 애착유형은 불안정한 애착유형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정한 애착유형 중에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의 긍정과 부정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은 차이가 있다는 Bartholomew 등(1991)과 Feeney 등(199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성인 애착과 성격특성

애착 유형과 성격특성

애착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열된 일곱 개의 성격특성 중 사려성

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안정형은 다른 불안정한 애착집단과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나타냈다.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거부형은 몰두형이나 두려운형에 비해 사회성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안정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배성, 자율성, 성취성 면에서는 네 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거부형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몰두형과 거부형은 사회성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임상적인 척도에서 안정형은 신경증이나 정신장애, 반사회적 경향에서 세 개의 불안정한 애착 집단보다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거부형은 신경증 면에서는 안정형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신장애나 반사회적인 성향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형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 몰두형이나 두려운형에 비해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적지만 심리적인 면에서는 몰두형이나 두려운형 못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몰두형과 두려운형은 신경증과 정신장애 경향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두려운형은 반사회적 성향

표 4. 애착 유형과 성격 특성별 평균(표준편차) 및 F검증

| 성격특성 | 애 착 유 형 | | | | F | Scheffe |
|------|-------------|-------------|------------|------------|----------|---------|
| | 1. 안정형 | 2. 거부형 | 3. 몰두형 | 4. 두려운형 | | |
| 활동성 | 9.30(3.11) | 7.68(3.19) | 7.89(2.99) | 7.57(3.09) | 9.15*** | 1>3,4 |
| 안정성 | 9.06(3.01) | 8.89(3.10) | 7.33(3.17) | 7.62(3.37) | 9.52*** | 1>3,4 |
| 지배성 | 8.70(3.30) | 9.15(2.93) | 6.99(3.62) | 6.81(3.36) | 10.38*** | 1>3,4 |
| 사려성 | 7.05(3.39) | 7.68(3.36) | 6.58(3.56) | 7.77(3.46) | 2.01 | |
| 사회성 | 10.28(3.41) | 6.31(2.58) | 7.13(3.38) | 6.66(3.53) | 36.53*** | 1>2,3,4 |
| 자율성 | 8.28(2.92) | 9.68(2.82) | 7.33(3.14) | 7.93(3.39) | 4.38*** | 2>3 |
| 성취성 | 9.49(3.39) | 10.31(2.68) | 8.10(3.79) | 8.17(3.76) | 5.96*** | 1>3 |
| 신경증 | 6.53(4.02) | 8.42(3.74) | 9.22(4.26) | 9.46(4.58) | 15.35*** | 1<3,4 |
| 정신장애 | 5.62(3.71) | 8.89(4.48) | 7.78(4.19) | 8.28(4.10) | 14.20*** | 1<2,3,4 |
| 반사회 | 5.24(3.09) | 7.78(4.44) | 6.79(3.56) | 6.48(3.56) | 8.16*** | 1<2,3 |

*** $p < .0001$

에서는 안정형과 구별되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은 몰두형과 두려운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병리적 성

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김은정 등, 1988; Lopez, et al., 2001; Meyers, 198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표 5. 애착 요인과 성격 특성간의 상관관계

| 성격특성 | 애 착 요 인 | | | | |
|------|---------|--------|--------|--------|--------|
| | 자신감 | 관계 몰두 | 승인 욕구 | 친밀함 불편 | 관계 부차적 |
| 활동성 | .40** | -.13** | -.15** | -.14** | -.11* |
| 안정성 | .34** | -.37** | -.34** | -.11** | -.08 |
| 지배성 | .41** | -.18** | -.24** | -.06 | -.01 |
| 사려성 | -.00 | -.10* | -.05 | .10* | .07 |
| 사회성 | .60** | -.26** | -.27** | -.35** | -.26** |
| 자율성 | .28** | -.28** | -.32** | .10 | .12* |
| 성취성 | .36** | -.22** | -.28** | -.01 | .03 |
| 신경증 | -.39** | .47** | .47** | .26** | .22** |
| 정신장애 | -.30** | .41** | .38** | .29** | .26** |
| 반사회 | -.12** | .26** | .24** | .17** | .16** |

* $p < .05$ ** $p < .001$.

애착 요인과 성격특성

애착요인과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보면 여기에서도 안정된 성격특성과 일곱 개의 기술적인 성격 특성에서 자신감은 사려성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관계 몰두나 승인욕구의 요인은 사려성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부적인 관련을 나타냈으며, 친밀함 불편과 관계 부차적인 요인은 활동성과 안정성, 사회성 면에서 의미 있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임상적인 척도에서 자신감 요인은 세 개의 영역 모두에서 부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나머지 네 개의 불안정한 애착요인은 신경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경향과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안정된 애착유형과 불안정한 애착유형간의 반응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안정된 애착 요인과 그렇지 못한 요인들과 성격 특성간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성인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표 6에서 보면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전략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안정형은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의 점수가 다

른 세 집단에 비해 의미있게 높으나, 회피 전략의 점수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의 사회적 지지는 애착의 주요 개념 가운데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움을 추구하거나 안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대상을 찾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안정형과 몰두형이 그렇지 못한 거부형과 두려운형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성인 애착의 구성개념 면에서 볼 때 매우 부합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몰두형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점수도 높으나 회피의 점수도 높아 이 전략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안정형과는 구분된다. 거부형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네 유형가운데 가장 낮으나 문제해결 전략은 안정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운형의 경우 문제해결 전략의 점수가 네 유형 가운데 가장 낮는데 비해, 회피전략의 점수는 가장 높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안정된 애착 유형과 불안정한 애착유형간에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대처 전략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줄 뿐 아니라, 불안정한 애착 유형 간에도 각 유형의 특징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애착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

애착요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보면

표 6. 애착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유형별 평균(표준편차) 및 F검증

| 스트레스 대처 | 애 착 유 형 | | | | F | Scheffe |
|------------|-------------|-------------|-------------|-------------|---------|---------|
| | 1. 안정형 | 2. 거부형 | 3. 몰두형 | 4. 두려운형 | | |
| 사회적지지 | 24.37(4.82) | 20.63(4.96) | 23.73(4.54) | 22.17(3.83) | 7.14*** | 1>2,4 |
| 문제 해결 | 24.86(4.27) | 24.11(4.81) | 23.78(4.45) | 23.10(4.56) | 3.54* | 1>4 |
| 회 피 | 17.80(3.38) | 19.55(4.20) | 19.16(3.55) | 19.78(4.37) | 7.29*** | 1<3,4 |

*p<.05 ***p<.0001.

표 7. 애착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간의 상관관계

| 스트레스 대처전략 | 애착 요인 | | | | |
|--------------|--------|-------|--------|--------|--------|
| | 자신감 | 관계 몰두 | 승인 욕구 | 친밀함 불편 | 관계 부차적 |
| 사회적지지 | .29** | .00 | -.08 | -.25** | -.24** |
| 문제 해결 | .29** | .12** | -.15** | .01 | .02 |
| 회피 | -.25** | .31** | .36** | .26** | .20** |

** $p < .001$.

자신감요인은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회피 전략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회피 전략은 불안정한 애착관계와 관련된 네 가지 요인과 모두 의미 있는 긍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과 관련 있는 친밀감 불편이나 관계 부차적인 요인은 사회적지지 전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안정된 애착요인과 불안정한 애착요인간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차이가 나며, 불안정한 애착요인 가운데에서도 타인관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처전략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지금까지 성인기에 나타나는 애착 패턴이 성격특성이나 스트레스 대처 전략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인기에 안정된 성인 애착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들은 자신감 있고,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남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연연하지는 않지만, 친밀감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성취를 위해 인간관계를 부차적으로 미루지 않는다.

성격 면에서는 활동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성이 높은 편이다. 심리적인 면에서 신경증적인 성향이나 정신장애적 성향이 낮고 반사회적 경향도 낮은 편이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문제해결 적으로 대처하는 편이며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안정된 애착 패턴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Lopez와 Brennan(2000)이 제안한 건강하고 효율적인 자기상과 상당히 일치한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각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타인에 대한 기대가 적은 거부형의 경우 자신감 수준이 높지 않으며, 관계에 몰두하거나 남들의 승인을 얻으려는 욕구도 높지 않다. 이들은 친밀함을 불편해 하며 성취를 위해 관계를 부차적으로 여긴다. 성격특성 면에서 사회성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지배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 지향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장애나 반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기보다는 문제해결 적으로 접근하거나 회피적인 반응을 보인다.

불안정한 애착패턴 중 몰두형과 두려운형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공통된 모습을 나

타내고 있다. 이 두 유형은 자신감 수준이 낮으며, 관계에 몰두하고 승인욕구가 높으면서도 관계를 부차적으로 여긴다. 그런데 몰두형의 경우는 두려운형과 달리 친밀함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성격 특성 면에서 이 두 유형 모두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이 떨어지며, 몰두형은 안정형에 비해 자율성과 성취성이 의미 있는 정도로 낮다. 두 유형 모두 신경증과 정신장애적 경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두려운형은 반사회적 경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 유형은 회피를 주로 하며, 두려운형은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의미 있게 낮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그려본 애착 유형 별 특성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상담이나 심리 치료면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시 안정형이나 몰두형은 비교적 쉽게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타인에 대한 부정과 기대가 낮은 거부형과 두려운형은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 접근 방식 면에서 안정형의 내담자에게는 관계 중심적인 접근이나 문제 해결 중심적인 접근이 모두 가능하지만, 거부형의 경우는 관계보다는 문제 중심적인 접근을 선호할 수 있다. 몰두형의 경우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은 치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두려운형은 기본적으로 회피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전략에 상관없이 이들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변화시키고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

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 면에서도 불안정한 세 개의 애착 유형은 안정형에 비해 심각하고 만성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들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검증되어야 좀더 분명해 지겠지만 이상과 같은 성인 애착 개념은 상담 초기 내담자의 특성 이해 및 전략 수립과 같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성인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 유형의 구분을 전적으로 피험자의 자기 보고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자기보고 식의 평가는 피험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이외의 애착 유형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이나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분류가 좀더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직 성인 애착 개념은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확립된 이론적 모델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도 애착 유형 및 요인과 관련된 변인들의 평균의 차이나 상호 상관을 보는 정도에 머물렀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이 어떠한 매개변인을 거쳐 대인관계나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 그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 성인 애착 이론은 Lopez와 Brennan의 주장대로 성인기의 인지, 정서, 행동에 총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이론으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피험자가 성인기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집단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표집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를 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기에 해당되는 폭 넓은 연령 대와 다양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직, 한성렬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김세진 (1999).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분노 경험 양상의 차이.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순영 (1998). 내담자의 부모 유대 및 성인 애착 능력이 상담 작업 동맹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미 (2000). 성인 애착과 자아방어기제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 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53.
- 김정연 (2003). 성인애착과 사회적지지 요청, 지지 받기 및 문제의 심각도 지각.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 신혜진, 김창대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19-935.
- 이경희 (2001).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이훈진 (2002).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91-807.
- 장휘숙 (1997a). 성인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장휘숙 (1997b).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6(1), 80-97.
- 정미나 (2003). 성인 애착과 자기 효능감 및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 정민현 (2003). 애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 불안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 최혜림, 조영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황응연, 김광은, 윤유경 (2003). 표준화인성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Ainsworth, M. D. S. (1985). Attachment across the life-span.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1, 792-81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24.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 (pp.3-28). NY: Guilford Pres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Collins, N. L. (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s for expla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479-496.

- Psychology*, 58, 644-663.
- Feeney, J. A. (1998). Adult attachment and relationship-centered anxiety. In J. A. Simpson & W. A.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189-218). NY: Guilford Press.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eene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 (pp.128-154). NY: The Guilford Press.
- Florian, V., Mikulincer, M., and Bucholtz, Ilan.(1995). Effects of adult attachment style on the perception and search for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Psychology*, 129, 665-7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Kennedy, J. H. (1999), Romantic attachment style and ego identity, attributional style, and family of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3(2), 171-80.
- Kobak,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Kobak,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and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47(3), 283-300.
- Lopez, F. G., & Gormely, B. (2002). Stability and changes in adult attachment styles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3), 355-364.
- Lopez, F. G., Mauricio, A. M., & Gormley, B. (2001).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cop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4), 459-64.
- Lyddon, W. J., & Sherry, A. (2001). Developmental personality styles: an attachment theory 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4), 405-14.
- Meyers, S. A. (1998), Personality correlates of adult attachment sty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3), 407-9.
- Shaver, P.,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The integration of three behavioral system. In R. J. Sternberg & M. L.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pp.68-99).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impson, J.,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34-446.
- Sperling, M. B., & Berman, W. H. (1991). An attachment classification of desperate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 45-55.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 M. Parkes & J.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pp.171-184), NY: Basic Books.
- West, M. & Keller, A. (1994). *Patterns of Relating: An adult attachment perspective*. NY: Guilford Press.
- West, M., Sheldon, A., & Reiffer, L. (1987). An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5, 738-741.

원 고 접 수 일 : 2003. 12. 11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 10

게 재 결 정 일 : 2004. 2. 3

K C I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Related With Adult Attachment Styles and Factors

Kwang-Un Kim

Korea Air Force Academ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how adult attachment styles and factors are related with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For the purpose, literature review about the concept of adult attachment and the survey of 433 university students on the adult attachment with its relative factor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The secure attachment style obtained higher score in confidence fact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ctivity, stability, and sociability than three insecure attachment styles. And the secure attachment style had lower tendency in neurosis, psychosis and antisocial behavior. When the secure style was confronted with the stress, she or he sought for the social support and used the problem solving strategy. Otherwise, the insecure attachment styles- dismissing, preoccupied, and fearful- showed the lower score in confidence and sociability, and they had high probability in neurosis and psychosis although three insecure styles responses we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respects. In the insecure styles, avoidance was their major stress coping strategy.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ere discussed.

Key Words : adult attachment styles, adult attachment factors, personality, stress coping strategy